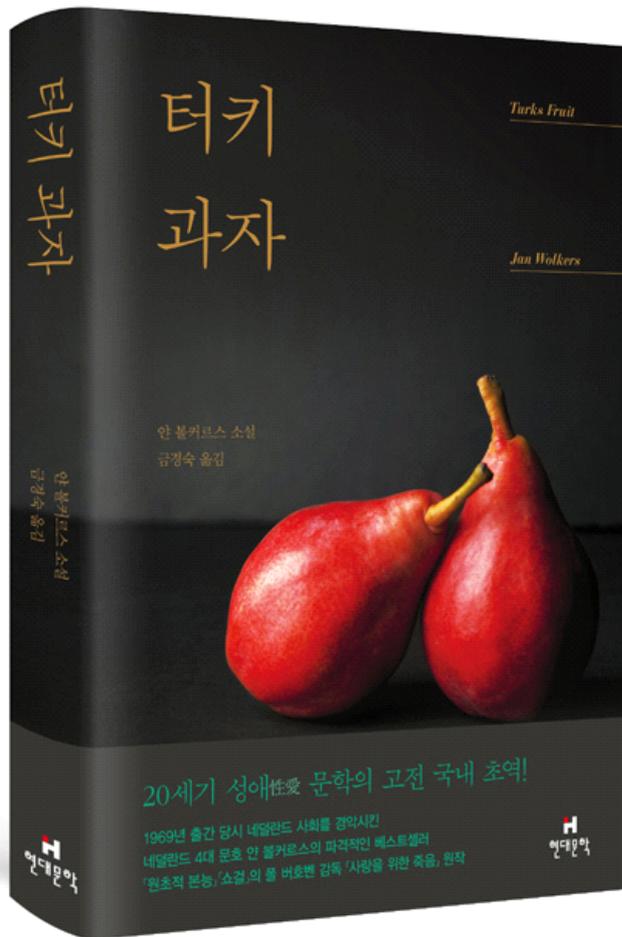


신간 안내 자료



## 터키 과자

*Turks Fruit*

1969

안 볼커르스 소설  
금경숙 옮김

252면  
값 13,000원  
2016년 6월 15일 현대문학 발행

이 책은 네덜란드문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간되었습니다. ●

---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어지간히 엉망이 되었다.  
더는 일하지 않았고, 더는 먹지 않았다.  
온종일 더러운 이불 속에 누워 그녀와  
그녀의 맨몸을 담은 사진을 바로 눈앞에 붙여서  
내가 자위를 하면 림멜 칠한 그녀의 질은 속눈썹이  
그에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고 상상했다.

---

## 1969년 출간 당시 네덜란드 사회를 경악시킨 네덜란드 4대 문호 안 볼커르스의 파격적인 베스트셀러 20세기 성애性愛 문학의 고전 국내 초역

1969년 발행 당시 숨김없는 정사情事 장면과 직설 화법으로 네덜란드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파격적인 베스트셀러 『터키 과자Turks Fruit』가 현대문학에서 출간되었다. 빌립 헤르만스, 하리 밀리스, 헤라르트 레버와 함께 네덜란드 문단의 '위대한 네 문호文豪'로 꼽히는 안 볼커르스의 대표작으로, 국내에는 처음 번역 소개된다. 『터키 과자』는 네덜란드 사회의 개방적인 성행 담론의 시발점이자, 네덜란드 현대문학의 근간이 되는 작품인 동시에 세계문학사에서 '네덜란드어로 쓰인 최고의 문학' '20세기 성애性愛 문학의 고전'이라 평가받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한편, 『터키 과자』를 원작으로 하여 폴 버호벤 감독이 제작한 영화 「사랑을 위한 죽음」은 1973년 제46회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 지독하고, 애뜻하고, 천진하며, 솔직하고, 자유롭고, 광기 어린, 격정적 러브 스토리 「원초적 본능」 「쇼걸」의 폴 버호벤 감독 「사랑을 위한 죽음」 원작

어느 허름한 작업실. 무명의 조각가는 떠나 버린 연인 율하를 생각하며 비참함과 분노로 허송세월한다.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미련, 그리고 율하와의 결별로 자신이 상실한 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긴다. 파괴적으로 스스로를 방치하는 나날에 대해 슬회하며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와 율하 사이의 사건들을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보여 주면서 그들의 관계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들려준다.

그는 히치하이커로 붉은 머리 아가씨 율하를 만났다.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에게 반해 길옆에 차를 세우고 사랑을 나눈다. 그런데 다시 차를 타고 가던 중에 함께 웃느라 교통사고가 난다. 이후 두 달이 채 못 되었을 때 그는 율하와 겨우 재회하고, 서로 알아 가며, 같이 살기 시작하여 결혼에 이른다. 이들 사이를 휘방 놓는 율하의 어머니, 그리고 계층 갈등이 있으나 사랑은 그들에 코웃음 치며 한껏 활개 친다. 미쳐 날뛰는 사랑의 한복판에서 율하는 돌연 그를 떠나고, 둘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격한 방향을 겪는다.

『터키 과자』의 사랑은 뻔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제로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실재성, 육체성을 지닌 사랑입니다. 그리고 율하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은 열정이나 소유욕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녀가 돌연 떠난 뒤 화자가 느끼는 절망과 분노와 자기 파괴는 합당한 감정인지, 사랑에 대한 오랜 물음을 다

시 가지게 됩니다. 둘이 함께할 때의 행복은 너무나 찬란하고, 다시 둘로 나뉘었을 때의 절망은 그만큼 참담하여 사랑이 가진 극한의 황홀감과 절망감의 극적인 대조를 보게 됩니다.

「울긴이의 말」에서

---

올하,  
그렇게 별나고, 괴상하고, 성가시고,  
사랑스럽고, 거친 구석이 있는. 그녀를 나는  
얼마나 미친 듯이 내내 사랑했던가.

---

『터키 과자』가 발표되었을 때 네덜란드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소설 속 두 남녀가 보여주는 에로스, 야생성, 육체성의 표현 수위가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전후戰後 네덜란드 문단에서도 유례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출판사는 볼커르스에게 성적인 표현들을 라틴어로 바꾸라고 요구할 정도였으며, 이를테면 ‘보지’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어 *kut*이 거리낌 없이 쓰이는데, 그 무렵의 네덜란드에서도 터부시되는 단어였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은 『터키 과자』 이후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었고, 이는 『터키 과자』가 당시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

이 작품이 대중적인 호응을 얻은 것은 성에 대한 솔직한 묘사에 더해 전통적인 사회 분위기에 대한 반기라는 점도 한몫한다. 1950년대 네덜란드는 전후 경제사회 재건이라는 기치 아래 검소와 절제를 미덕으로 여기고, 엄격한 개신교 신앙을 고수하며, 부모의 영향력이 자식을 지배하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다. 문학 역시 조화와 질서가 중요시되어 어떠한 실험이나 어긋남도 용납하지 않는 ‘지루한’ 시대였다. 그러나 ‘신비로운’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가치들은 조롱당하고 전복되기 시작하는데, 구시대에 반기를 든 젊은 작가들은 전후 재건 정신과 도덕관을 옛것으로 간주하며 인간의 다른 모습을 그려 내고자 했다. 그들에게 인간은 대의만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며, 늘 이성적이지도 않고, 종교적 엄숙함에 짓눌리지도 않는, 삶 그 자체의 역동성과 풍성함으로 가득한 존재였다.

그리고 볼커르스는 이들에게서 한발 더 나아가 온갖 형태의 위선을 타파하는 작품으로써 인간을 직시하려고 애썼는데, 그가 주로 사용한 장치야 바로 성애이며 생생한 정사 장면은 볼커르스 문학의 전형이 되었다. 죽음, 관능, 죄의식 등 인간의 어두운 욕망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터키 과자』는 이러한 특징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소설이다. 그는 여기에서 억압적인 종교와 부르주아 도덕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예술, 아울러 사랑의 허위마저도 벗어던지려고 한다. 어떤 드높고 고정불변인 사랑이 아니라 보다 땅에 가까운 사랑에 의미를 부여하여, 땀과 눈물과 환희와 질병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사랑을 인간과 인간 삶의 어쩔 수 없는 요소로 바라보았다.

타오르는 생명력에도 불구하고 『터키 과자』 속의 사랑은 죽음, 쇠락, 필사必死, 무상無常과 맞닿아 있다. 암 때문에 한쪽 유방을 잃은 올하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한 올하 친지의 죽음들이 거듭 언급되고, 인간의 육체에서 떨어져 나간 각질/빠진 머리카락과 거웃/굳어진 피 등의 이미지와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물 사체, 사물의 마모/파괴, 장소의 변화/덧없음은 하나의 연결 고리를 이루며 변주된다. 원제 *Turks Fruit*는 글자 그대로는 ‘터키 과일’이라는 뜻으로, 터키의 과자 이름을 일컫는 네덜란드 말이다. 끈적하게 달콤하고 너무나도 부드러운 곧 바스러진다.

아울러 문학적인 의의를 따질 때면 볼커르스의 문체가 빠지지 않는데, 『터키 과자』는 하나의 장황이 줄 바꿈 없이 한 문단으로 이루어지고, 이름 없는 일인칭 화자의 독백이며, 회고 형식이다. 보수적이고 기독교 윤리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감정’ ‘성적 주체로서의 개인’을 강조하기 위해 ‘나’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려고 한 것이다.

한편, 『터키 과자』를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고 전했을 때 네덜란드문학재단에서는 대단히 환영하며 『터키 과자』와 얀 볼커르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원서의 의미와 뉘앙스가 한국어로 정확히 옮겨갈 수 있도록 옮긴이와 여러 차례 논의하기도 했다.

출간된 지 50년이 되어 가는 『터키 과자』는 독자들과 함께하면서 시간이 흘러, 당시 네덜란드 사회를 놀라게 했던 대답함은 지금은 별스럽지 않은 일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현대 고전으로 꾸준히 읽히고 있는 이 작품은 네덜란드에서 고등학생 권장 도서 목록에 올라 있으며, 인터넷 서점의 『터키 과자』 서평에는 고등학생의 글이 유독 많다고 한다.

---

‘너희는 지독히도 행복하게 살았고,  
거기에 끝이 온 것뿐이야.’

---

---

## 해외 서평 ●

얀 볼커르스는 사랑과 죽음, 무상無常이라는 목직한 주제를 완벽한 방법으로 엮어 냈다. 시간이 지나도 힘을 잃지 않는 소설. 『NRC 한델스블라트』(네덜란드 일간지)

헨리 밀러처럼 볼커르스는 삶에 대해 끝없이 갈망하고 관능에 회화적으로 접근한다. 그는 신선한 문장가다. 『뉴욕 타임스』

1969년 출간된 『터키 과자』는 깜짝 놀랄 만한 솔직한 정사 장면을 담고 있는데, 이를 능가할 작품은 당시 네덜란드는 물론 어디에도 없었다. 선정성 논란을 떠나, 네덜란드 문학으로는 최고로 꼽힌다. 『가디언』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소설. 모든 장면은 암시적이고 원초적이며 정교한 은유로 가득 차 있다. 터키 과자는 그들의 불운한 사랑의 허약한 상징이다. 네덜란드문학재단

네덜란드 문단의 치명적인 진주. 『르 몽드』

노골적이고 도발적인 소설. 1960년대 암스테르담의 필사적인 열정. 『롤링 스톤』

전통 사회에 대한 대항문화의 승리. 에로티시즘은 작가의 의도에 따른 도구일 따름이다. 『터키 과자』는 사랑과 문학의 또 다른 정의에 이르게 한다. 「문학 살롱」

대단히 에로틱한 이 작품은 위대한 사랑 이야기이자 현대사회의 관계 구조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다. 도이칠란트라디오 쿨투어

『터키 과자』는 파경을 맞은 사랑, 가장 평범한 이상理想, 열정적인 섹스로 특징지어지는 인생의 한 시절의 끝을 이야기한다. 『파히나 도세』(아르헨티나 일간지)

독자를 정신없이 빠져들게 하는 연애소설이 아니라, 작가의 냉정한 시선이 움직이는 작품. 내가 본 최고의 해외 문학이다. 아마다 에이미(일본 작가)

상스럽고 난폭함에도 숙련된 문체. 부드러움이 흐른다. 『헤럴드』

사랑이 살아남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편협함과 망가짐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엘케 하이덴라이히(독일 작가)

---

## 책 속으로 ●

[...] 널 떠나고 나서 난 지혈 솜을 구하러 약국으로 달려가야 했어. 내 심장을 다독거리는 데 필요한 것이었지. [...]

\_ 12쪽, 「엔다이브 끓는 면도 접시」

[...] 앞서 말했듯 얼어붙은 날이었고 만화 속 인물에 붙는 말풍선처럼 내 입김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신발이 땅에 얼붙었고 바지는 얼음으로 얇게 덮여 움직이면 짹짹 소리가 났다. 하지만 일단 그 큰 차의 짐칸에 가방을 던져 넣고 그녀 옆에 폭 파묻혀 앉자 고난이란 고난은 어느새 잊었고, 얼음이 녹아 바짓가랑이가 허벅지에 으슬으슬 달라붙자 순식간에 차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다. 큰 나뭇가지들이 얼음 무게를 이기지 못해 성냥개비처럼 동강 나 도로에 떨어져 있는 바람에 이따금 그녀는 갑작스레 속도를 줄여야 했다. 그럴 때는 그녀의 다리가 해먼드오르간의 페달을 밟는 것처럼 우아하게 움직였다. 풍경은 자동차 양쪽으로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제멋대로 자란 버드나무와 황토색 갈대 사이 누추한 농막. 사실 따분하기 짝이 없지, 그렇게 예쁜 아가씨 옆에 앉아 있고 내 앞의 그렇게 눈부신 대시보드에서는 클리프 리처드가 「리빙 돌」을 불러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나는 오직 하나뿐인 견고 말하는 살아 있는 인형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예를 들어 저기 저 농부처럼 머리통에 목도리를 감고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하는 처지였다면 말이지. 해가 구름 사이로 어슴푸레 비치면 나무들은 녹은 유리 속에 서 있는 듯 반짝거렸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그 한가운데로 돌진하는 것만 같았다. 급커브를 돌 때는. 나는 연신 그녀의 얼굴을 곁눈질했다. 주근깨가 있고 토실한 그녀의 뺨. 그 멋진 붉은 머리, 진짜냐고 진짜 물어보았고, 그녀가 그렇다고 하자 나는 그저, 그러니까 이게 베네치아 금발이구면, 따위의 말을 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보세요, 진짜랍니다.” 나는 그새 클리프 리처드를 따라 부르며 그녀를 바로 쳐다보고 빙그레 웃었다. 그 와중에 나는 그녀의 겨드랑이 털과 거웃도 그렇게 붉은색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살짝 더 떨어져 앓음으로써 그녀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면 최소한 그녀와 눈을 맞추면서도 단숨에 낚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기막힌 눈동자. 내 평생 본 가장 아름다운 눈동자. 갈색이었다. 금빛이라 해도 좋은. [...]

\_ 37~39쪽, 「모피 코트 블루스」

[...] 얼마나 외로워야 더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나. 얼마나 침묵해야 더는 그리움을 말하지 않게 되나. [...]

\_ 69쪽, 「독 사과」

[...] 그녀가 나를 떠난 지 몇 해 뒤 나는 우연히 그 조각상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추었는데 건물의 담장이 잠겨 있기에 건너편 수로 쪽으로 가서 앉았다. 그 구월의 하루가 고스란히 내 눈앞에 떠올랐다. 그녀가 꼭 끼는 그 원피스 차림으로 수반 위의 달리아같이 짓썩지를 드러내고 거기 서 있던 모습. 그 모습에 내 작품이 무색해졌던 것. 그리고 그녀의 어떤 면도 담고 있지 않은, 생기 없는 추상 조각. 불현듯 내가 그 조각상으로 그녀의 두려움에 형상을 부여했다는 생각이 뇌리에 떠올랐다. 모성에 대한 그녀의 공포. 그것은 아이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땅으로 펼쳐 밀어내는 여인이었다고. 아이는 제 부피만큼 그 여인의 몸에 난 구멍에 꼭 들어맞았을 것이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맞닥뜨렸을 때의 그녀 모습처럼 결국에는 그녀와 관련 있었다고. 그녀의 변한 모습처럼. 구저분한 시술자의 손에 두 번 낙태한 후 난소를 하나 잃고 만신창이가 된, 그리고 자신에게서 도망치느라 녹초가 된 모습. 그리고 내가 그때 만든 그 조각상에 나는 소스라쳤다. 그녀가 그토록 근심 없이 행복하게 나를 도왔던 그 조각상에. 섬뜩하리만치 내가 훗날 앞일을 내다보았음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내 손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정작 나 자신은 너무 늦게 이해했다. 그녀를 돕기에는 너무 때늦게.

\_ 111~112쪽, 「정원 난쟁이 요정」

[...] 아닌 게 아니라, 그녀가 일하러 가고 없을 때 가냘프고 고상한 백발의 미술품 감정가가 내 그림 하나를 사 갔다. (관례인 50길더 에누리도 하지 않고.) 당장 나는 자전거에 올라타서 베이엔코르프로 달렸는데 그 백화점 쇼윈도에 있는 옷감을 오래전부터 보아 두었었다. 분홍, 빨강, 갈색, 진노랑 줄무늬가 있는 천. 작업실에 와서 그녀 몸의 윤곽을 따라 하드보드로 본을 뜨고 나무로 튼튼히 받쳐서 혼자 설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옷감을 팽팽하게 두르고 종이에 **미스 개미허리**라고 써서 목에 붙였는데, 특하면 그녀의 배를 무릎으로 힘껏 밀면서 허리띠 구멍 하나를 더 졸라매어 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녀는 집에 와서 상기된 얼굴로 기뻐했다. 그녀는 ‘미스 개미허리’를 들고 거울로 가져가 제 몸 앞에 대어 보았다. 그것은 빈틈없이 그녀를 덮었고, 그녀는 자기 자신 뒤에 가려지게 되었다. 마치 벌써 원피스를 입은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감탄스레 말했다. “내가 어떤지 너는 정말 잘 아는구나.” 그녀가 잇바디에서 몸으로, 혀로 시침 핀을 잔뜩 꽂아 가며 원피스를 만들어 처음으로 입고는 팔을 살짝 들고서 내 앞에 가만 서 있었을 때, 나는 말했다. “올하, 네가 온 나라에서 가장 예뻐. 너는 윤기 나는 사과처럼 아름다워.” (나중에 그 망할 청개구리들을 찾다가 하드보드로 만든 그녀의 몸 실루엣이 잡동사니 사이에서 나오자, 나는 그것을 거울로 가져가서 내 옆에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두 손을 그녀의 허리 아래에 놓고 거울 속 우리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옷감이 새삼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였고, 나는 당시의 그녀

모습을 떠올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흐르고 난 뒤의 그녀 모습이 보였고 그 형상을 흔들려 펼쳐 내자 내게 남은 것은 그 윤곽뿐이었다. 본본, 그녀의 그림자. 우리 행복의 청사진, 그걸 읽어 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갓 갈색 마분지에 지나지 않았다.) [...]

\_ 143~144쪽, 「개미허리 아가씨」

[...] 파리조차 기진맥진하여 계속 살에 들러붙을 만큼 후텁지근 무더운 팔월의 어느 날, 우리가 다시 문간에 서서 비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오고야 말았다. 몇 초 만에 거리를 적셔 버리던 굵은 빗방울. 가로수만이, 거기서 가루가 떨어지기라도 한 양, 잿빛 동그라미 안에 그대로들 서 있었다. 그때 별안간 청회색의 매지구름이 으르대며 하늘에 몰아쳐 왔고 이윽고 널빤지로 때리는 듯한 우레 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역수같이 퍼부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 던지더니 팔을 활짝 벌리고 그 큰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흠뻑 젖어 원피스로 속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그러자 집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비키니를 꿰어 입었다. 그 차림으로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의 배수구에 가서 한 자는 되는 회색 빗물의 소용돌이 속에 누워 퍼붓는 채찍비를 온몸으로 맞았다. (하지만 젖가슴을 탄탄하게 한다면 찬물로 샤워할 때처럼 마냥,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라고 소리치지는 않았다.) 나는 포도주 두 잔을 따라—필시 그 무렵 다시 작품 의뢰를 받았으리라—쟁반으로 받친 다음, 밖으로 가져가 웅덩이에 있는 그녀 옆에 가서 보도 끄트머리에 앉았다. 우리는 포도주가 묽어지기 전에 잔을 비우고 빈 잔 놓인 쟁반은 뚱뚱 떠다니게 놔두었다. 양동이로 들이붓듯이 쉬지 않고 쏟아지는 비에 가라앉을 때까지. 그녀는 자동차들이 그녀에게 물을 튀기지 않으려고 천천히 지나간다고 생각했다. 그 사랑스러운 것. 비가 그쳤고 작업실에 들어와 젖어 뭉친 옷을 내 몸에서 킁킁대며 벗겨 내는데, 그녀가 대뜸 말했다. “자, 있는 힘껏 할 수 있을 때까지 해 줘.” 밖에서 폭우가 하수구로 팔팔 빠져나가는 동안 나는 그녀의 젖은 육체 위에서 짐승처럼 마구 날뛰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그 여름날 한가운데에서 땀과 비에 젖어 서로 엉킨 채 잠에 빠져들었다. [...]

\_ 146~147쪽, 「개미허리 아가씨」

[...] 네가 뭘 했든, 네가 무엇을 하거나 할 것이든, 네가 또 어디로 가든,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할 것이다! [...]

\_ 185쪽, 「카이사르와 브리짓트 바르드」

[...]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갈매기는 획 날아올라 퍼드덕퍼드덕 날갯짓하며 내 주위를 날기 시작했다. 공간을 조각조각 쳐 대는 것 같았다. 날개 끝으로 조그만 방의 벽면을 굴러 밀어내는 것 같았다. 갈매기는 나를 빙빙 돌며 하염없이 날기만 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서서 울었다. 지난 그 이태 동안의 더럽고 고약하고 지랄맞은 것들을 깡그리 토해 내며 울부짚었다. 그러고는 우느라 뺨뺨해진 면상으로 갈매기를 상자에 넣어 암스털 강둑으로 차를 몰았다. 바로 거기, 물웅덩이 위로 멀리서 갈매기들이 날고, 모래를 부어 놓은 별판에서, 상자를 열었다. 갈매기는 대변에 날아올라 공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새의 작별이란 으레 그러하듯이 내 머리 위에 두어 번 동그라미를 빙 그렸다. 그러더니 어느새, 끼룩끼룩 껍껍 울며 날아가던 동족의 무리에 파묻혔다. 나는 외치고, 고향지르고 싶었지만, 소리라고는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뒤에서 손으로 내 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목구멍을 있는 힘껏 죄는 것만 같았다.

\_ 208쪽, 「저주의 뭇」

## 얀 볼커르스 JAN WOLKERS ●

(우흐스트헤이스트 1925.10.26. ~ 베스테르민트 2007.10.19.)

빌럼 헤르만스, 하리 필리스, 헤라르트 레버와 함께 네덜란드 문단의 ‘위대한 네 문호’로 꼽히는 얀 헨드릭 볼커르스는 죽음, 성성, 질병에 정면으로 맞서며 온갖 형태의 금기를 깨는 작품을 남긴 네덜란드의 작가이자 조각가 겸 화가이다.

그는 네덜란드 자위트홀란트 주 레이던 근교에 있는 우흐스트헤이스트에서 청과물 가게를 하는 부모의 열한 자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났다. 엄격한 개신교 환경에서 유년을 보냈으며 레이던의 미술 학교에 다녔다.

1961년 등단하여 2007년 작고하기까지 50편 이상의 작품을 정기적으로 발표했다. 자전적 소설인 『우흐스트헤이스트로 돌아가다 *Terug naar Oegstgeest*』(1965)와 17개 언어로 번역된 『터키 과자 *Turks Fruit*』(1969)가 대표작으로 꼽히며, 그의 작품 가운데 『터키 과자』를 비롯한 네 편이 영화로 제작되었다.

볼커르스는 특히 1960년대 네덜란드의 성 혁명을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졌는데, 생생한 정사 장면은 그의 문학의 전형이 됨과 동시에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성향이 가장 잘 나타난 작품이 『터키 과자』로, 흔히 네덜란드 사회의 개방적인 성 담론은 『터키 과자』 전후로 나뉜다고 이야기된다.

작품을 통해 스스로와 독자들을 전후 네덜란드 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로부터 해방시켰다고 평가받는 그는 살아생전 콘스탄테인하위헌스상과 호프트상 등 자신에게 수여된 모든 문학상을 거부했다. 네덜란드에는 볼커르스의 이름을 딴 거리와 도로가 있다.

다만 위대한 한 존재가 있다.

\_ 네덜란드 ANP 통신

## 윤진이 금경숙 ●

부산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했다. 2006년부터 네덜란드에 거주하면서 네덜란드어 번역을 하고 있으며, 저서로 네덜란드 생활기를 담은 『루르몬트의 정원』이 있다.